시작은 일천번제 끝은 일천아내

(열왕기상 11:1~13)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시작은 일천 번제 끝은 일천 아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시작은 일천 번제 끝은 일천 아내'
여러분은 삶의 걱정거리를 극복하는 비법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거리들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성서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걱정거리 대처방법은 삶에서 주어지는 걱정할 만한 사실들을 현실로 승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걱정할 만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꼭 염려 걱정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실들을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에서

현실로 승격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사실들에 마음의 시선을 줌으로서 승격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사실로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현실로 승격시키는 것인데, 마치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듯이 마음의 시선으로 조준해서 과녁을 맞히는 것입니다.
현실로 승격되지 않은 사실들은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나 조준하지 않는 과녁과 같습니다. 총을 조준을 하고 있을 때에는 과녁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초점을 맞춘 피사체 외에는 다 흐릿해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시선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실은 현실로 승격되지 못하고 단순한 사실로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무엇을 현실로 선택해야만 할까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계심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내 마음의 시선을 주면 다른 것들은 다 흐릿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걱정거리 대처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의 시선을 주면 하나님이 현실로 승격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이 현실로 승격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돈 없는 문제나 자식 문제 등에는 눈길을 주기 쉽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눈길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십자가에 주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그 증거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만족함이 나타납니다.
갈3: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이 오직 십자가만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시선을 주고 현실로 승격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3:14절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가르침을 현실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죽은 것이 현실이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어 나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중요한데 상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형상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눈으로 볼 때에는 미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는 남미 쪽 축구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보면 목에 걸린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하늘을 향해 성호를 긋습니다. 이미 마음 안에는 골과 승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형상에 키스를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십자가 형상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보아야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현실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죽음이 분명해야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인이라는 교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눈과 귀로 세상일을 보고 들을 때에, 보고 듣는 세상일은 하나님이 뜻이 발사되어야 할 과녁들이 되는데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 하는 사건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였습니다. 이러한 일천 번제를 보편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보편화'라는 것은 솔로몬만 일천 번제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화'라는 것은 일천 번제의 의미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천 번제로 왕의 삶을 시작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일천 아내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칠백이고 첩이 삼백으로 합이 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6:8절을 보면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합니다.
실제로 천명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가서의 백사십 명은 솔로몬이 늘 마음에 가까이 둔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40년 통치 기간에 손목이라도 잡아 본 여자 전체가 천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천 명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천 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왕들이 있었는데, 10세기경 터키의 왕들은 대개 천 삼백여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꾸라지두부숙회"라는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비유로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생활화합니다. '미꾸라지두부숙회'는 미꾸라지를 냄비에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미꾸라지들이 뜨거워서 요동을 치다가 그때에 차가운 두부를 통째로 집어넣

으면 두부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보양식입니다.
일천 번제의 '일천'은 이렇듯 내 마음을 미꾸라지처럼 파고드는 일천 개의 대상을 상징합니다. '일천 개의 대상'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까지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숙회가 되게 하는 대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꾸라지들은 현실로 승격되기를 기다리는 사실들입니다. 그것들이 현실로 승격되면 초점을 맞추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돈 건강 자녀들 부모 등 미꾸라지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미꾸라지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는 미꾸라지가 되어서 마음을 두부숙회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미꾸라지두부숙회를 '번제'로 죽이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렇듯 계속해서 현실로 들어오는 사실들을 죽이다보니 일천 번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나니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잭팟이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퍼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 대신에 일천 아내가 솔로몬의 말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라는 존재는 마음을 무방비상태가 되게 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둘이서 살 때에 하와 한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사탄과 마음을 접촉하고 있었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 한 여자를 이기지 못함으로 타락의 유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가서 말씀대로 백사십명이든 본문의 말씀대로 천명이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 신을 섬기려 제단을 만들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려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윗에게서도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마음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미꾸라지가 마음에 들어와서 미꾸라지두부숙회가 되면 그 간교함과 간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이나 가정파괴범일지라도 두부숙회가 되어버린 마음을 십자가 번제로 주님께 드리고 오직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셔서 성전의 지성소가 되면 다윗이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의 솔로몬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아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돈 건강 자녀 사업 승진 등에 초점을 맞추면 괴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미 괴물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풍요의 신 아스다롯에게 분향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믿게 됩니다. 마음이 미꾸라지두부숙회가 되어버린 것을 모르는 채로 마음에 돈을 담고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돈을 담은 것이 죄인데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풍요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고 자식을 제사물로 바치게 하는 몰록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나 권력을 최고로 여겨서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회장님도 교황님도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솔로몬처럼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전체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밝히 보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고 성전건축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의미조차 다 잊어버리고 아내들을 바라보다보니 아내를 현실로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어온 상태를 일천 번제로 죽였어야 합니다. 아내 한 사람당 매번마다 번제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천 번제를 생활화할 수 있게 성전을 건축했으므로 성전에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질 때 1번 아내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미꾸라지숙회가 되어 버린 내 마음이 지금 성전에서 어린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내가 들어온 나의 마음이 죽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마음도 지성소의 모습처럼 하나님아버지의 이름만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일천 명의 아내는 대 심방처럼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도 삼년이 걸리는 숫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데 이 새로움 때문에 아내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일까요?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일천 다음에 번제가 없어지고 대신 일천 다음에 아내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로 나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에 분명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고, 마귀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유혹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현실이 되는 자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기적일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대상들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평강이 임하면 내 사지백체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과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천 아내는 돈 건강 자녀 등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일천 아내들을 현실로 승격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일천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내들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말고 일천 번제로 대응함으로서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 중에 나의 현실로 승격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